

불확실성에 짓눌린 일상... 글로벌 곳곳 '증시폭락' 신호 감지

美, 관세전쟁 본격화... 시장 패닉
韓,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 지속
“주식시장, 하락 꺾을 가능성 농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대해 엄청난 과대광고가 있었지만 어떤 기업도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인공지능(AI) 시장에 빚대어 한 말이다. AI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제2의 닷컴버블’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예견이 현실화하는 것일까. 인공지능(AI)관련주들이 맥없이 주저앉는 등 글로벌 증시 주변 곳곳에서 ‘폭락이 가깝다’라는 신호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침체(recession)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른 탓이다. 특히,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속명 아래 있는 국내 증시는 더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리아 피크 우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등 경제·정치를 아우르는 불확실성까지 시장을 짓누른다.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리세션물렛’ 아래

트럼프의 ‘리세션 물렛(침체를 건러시안 물렛)’이 시장에 ‘패닉(공포)’을 불러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나스닥은 2.70% 하락했다. 다우존스와 S&P도 1%대 추락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주는 4%대 하락했다. 태평양을 건너온 ‘공포’는 아시아 증시를 침몰시켰다. 31일 한국(-3.00%), 일본(-4.05%), 대만(-4.20%) 등 주요 아시아 증시는 3~4%대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 시장도 휘청였다. 트럼프가 겨는 ‘상호관

세’의 창끝이 예상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블랙먼데이’를 만들었다.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오는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되므로 전 세계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관세는 조금 복잡하

다.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처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 가능성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갈라선 집안 끝에 경제주체들 ‘각자 도생’

나라 안으로도 악재들이 첩첩산중이다. 내리막길을 걷는 국가의 증시가 좋을 리 없다.

안갯속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 심판이 그중 하나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길어진 탄핵정국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와 국민의 소비 심리는 아직 한겨울이다. 김진욱 씨티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야당이 또다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결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정책 입안 효과도 약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4월 중순 이후 현재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도 원·달러 환율은 석 달간 145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지금 ‘피크 코리아’ 위기에 직면했다. 잘하던 분야는 죄다 중국 등에 추월당했고, 첨단 분야는 멀찍이 뒤처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에서 1.5%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에서 1.2%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HSBC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HSBC는 지난 달 만해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내렸다.

HSBC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1~2월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에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이 가파르게 둔화할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 여파로 제조업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의미 있는 회복이 어렵다고도 봤다. 또 소비자심리 지수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하회해 소비 회복도 쉽지 않다고 짚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이 깊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 주식시장도 재하락 여지가 짙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관세 우려에 원자재 비축 움직임... 가격상승 가속화

美, 올 들어 구리 가격 28% ‘경총’
국제시세 격차 사상 최대 수준

미국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국제 시세와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구리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 25일 파운드당 5.183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가다. 이후 28일에는 5.112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만 28%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 기준 시세인 런던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약 4.44달러로 13%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WSJ은 “전례 없는 가격 격차”라며 “이는 관세 위협만으로 (미국) 국내 제조업체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직접 연

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된 자체만으로 미국 내 구리 비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WSJ은 “구리는 자동차부터 휴대전화까지 모든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전선과 파이프를 통해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쓰인다”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현대화, 재생 에너지 생산의 증가, 데이터센터 건설의 붐으

로 인해 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구리 생산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글렌코어는 증가하는 구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매년 약 100만톤씩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미국 구리 값이 급등하면서 차익을 노린 구리 매매 움직임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프랏 자산운용의 ETF 상품 담당 스티브 쇼프스톤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됐을 수도 있는 구리가 차익 거래를 위해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 신성장 바이오·신약 중심도시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포항은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부터 생산 및 품질고도화에 걸친 전 주기를 특화하여, 바이오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향의 통합 혁신 포항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방사광가속기·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을 연구·지원하는 기관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거점으로, 의료수요가 큰 난치성 질환의 치료 대안으로 부상한 유전자·세포치료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연구소

3·4세대 방사광가속기

- 3세대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 4세대 3세대보다 1억배 밝고, 시간분해능력이 1천배 짧아 살아있는 세포활동을 실시간 분석 가능하여 전 세계에서 5기만 운영중